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일자리 채용 공고 예상외 크게 늘어
- Bloomberg: 노동 시장 활력 잃으면서 연준 긴장감 보여
- Bloomberg: 시카고 연준 총재, “정책 관리들 향후 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미국 금융]

- WSJ: 나스닥 지수 최고치 기록하면서 하반기 진입
- CNBC: 파월의 ‘디스플레이션’ 언급에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뉴욕시]

- Bloomberg: 뉴욕시 아파트 부족 현상 더 심화된다

[미 대선]

- JP 모건: (웨비나 안내) 2024 US Election Landscape: What lies ahead
- WSJ: 왜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선 교체 후보일까?

[물류]

- Bloomberg: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글로벌 선박 어려운 상황

[반도체]

- Bloomberg: 미국,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으로 노동력 부족 해결 시도

[전기차]

- Bloomberg: 미 자동차 판매 둔화 예상... 금리 인상과 사이버 공격 탓
- WSJ: 미국과 중국, 전기차 기술의 획기적 발전 노린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아마존, 4분기에 인터넷용 우주 위성 발사 예정
- CNBC: 스타벅스, 음료 주문 방식 개선으로 대기 시간 줄인다
- CNN Business: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Tock 인수로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확대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Job Openings Unexpectedly Increase From a Three-Year Low

미 일자리 채용 공고 예상외 크게 늘어

- 5월 미 일자리 채용 공고가 예상외로 높아 지난 수개월간의 노동 시장이 둔화 추세를 바꾸었다.

-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았던 4월의 채용 가능한 일자리 숫자가 하향 조정된 7백92만건에서 5월에는 8백14만 건으로 늘었다고 연방 노동부 관련 자료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 블룸버그의 전문가 설문 조사에서는 7백95만건의 공고로 예상했다.
- 채용과 해고는 둘 다 늘었고, 사직 건수는 크게 변동이 없었다. 실직자 한 사람 당 가능한 일자리 비율은 1.2로, 2021년 6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수치였을 때는 2022년으로, 실업자 1명 당 가능한 일자리는 2개였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US Labor Market Shows Signs of Losing Steam, Putting the Fed on Alert

노동 시장 활력 잃으면서 연준 긴장감 보여

- 노동 시장이 활력을 잃은 가운데 이코노미스트들과 일부 연준 관리들은 이 같은 현상이 근로자들에 고통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올해 기업들은 채용 공고가 줄어들고,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근로자들의 퇴직율도 감소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타이트했던 노동 시장이 끝나고 있는 신호를 보이고 있다.
- 노동 상황이 계속 둔화되면서 미 경제 성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 시장의 전망에 대한 변화가 경제와 금융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오늘 일자리 채용 공고 보고서가 나오고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 추세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s Goolsbee Says Policymakers Should Prepare for Rate Cuts

시카고 연준 총재, “정책 관리들 향후 금리 인하에 대비해야”

- 시카고 연준 총재인 Austan Goolsbee는 만약 미 인플레이션이 2% 목표로 계속 떨어지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우리는 물가가 2%로 향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동안에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긴축을 말하는 것이데, 연준 결정으로 금리를 내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인플레이가 목표치로 향하고 있다며 1월에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인플레이 수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Nasdaq Hits Record to Kick Off the Second Half 나스닥 지수 최고치 기록하면서 하반기 진입

- 나스닥 종합지수가 올해까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올해 들어 나스닥 지수는 21번째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우며 0.8%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의 최고치에 매우 근접한 수치이다. 다우존스 지수는 0.1% 즉, 50.66 포인트 상승했다.
-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전망과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증시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WSJ 기사

CNBC: Treasury yields dip as investors monitor economic data, Fed Chair Powell's remarks

파월의 '디스플레이션' 언급에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강력한 인플레이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에 따라 국채 금리가 하락했다.
- 10년 국채 금리는 3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떨어진 4.44%를 기록 중이고 2년물은 3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한 4.74%를 기록 중이다.
- 파월 의장은 포르투갈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포럼에서 작년의 미국 물가 개선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금리 인하가 충분히 확실할 때까지 보다 충분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뉴욕시]

Bloomberg: New York City's Apartment Shortage Is Set to Get Even Worse

뉴욕시 아파트 부족 현상 더 심화된다

- 뉴욕시 아파트가 50년 넘게 타이트한 상황을 보이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 현재 임대 공실률은 1.4%에 불과하고, 임대료는 계속 상승 중이다. 임대료 하락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고금리가 뉴욕시 5개 자치구의 임대료 개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 지난달,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다가구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은 건수는 36건으로,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 작년엔 허가 신청은 총 1만5천5백채로 이는 지난 2016년 이래 가장 낮았다.

Bloomberg 기사

[미 대선]

JP 모건 웨비나 안내: 2024 US Election Landscape: What lies ahead Tuesday, July 2 | 11:15 a.m. ET / 4:15 p.m. BST

Please join us for the next webinar in our 2024 US Election Watch series featuring **Charles Myers**, Chairman and Founder, Signum Global Advisors, and **Mathew Lapinski**, CEO, Crossroads Strategies, LLC, and J.P.Morgan's Chief U.S. Economist, **Michael Feroli**, and **Elizabeth Herman**, Federal Government Relations. The speakers will provide a post-debate analysis on the first Biden-Trump debate of 2024, including implications, key issues, and dates to monitor.

This virtual meeting is open to clients of J.P. Morgan only and closed to all members of the press.

Pre-registration is required: Please register for this event by clicking [here](#).

필요할 경우 Joyce Chang 기재

WSJ: Why Kamala Harris Would Be Biden's Likeliest Replacement 왜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선 교체 후보일까?

- 바이든이 민주당 후보에서 물러난다면 이를 대체할 민주당의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이 스포트를 받고 있다.
- 현재 바이든은 물러날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여러 명의 주지사들과 의원들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장 가능성 높은 인물은 해리스 부통령이다.
-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는 바이든만큼 인기가 높지는 않지만, 여성과 흑인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만약 그가 후보자를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분노와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

- 일부 전문가들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바이든과 트럼프의 토론 후, 해리스는 민주당 내 바이든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면서 유권자, 기부자, 유명 인사들을 만나 강력하게 바이든의 대변인으로 나서고 있다.

WSJ 기사

[물류]

Bloomberg: Global Shipping Strains Seen Extending Into Second Half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글로벌 선박 어려운 상황

- 컨테이너 선박과 글로벌 운송 서비스는 이맘때쯤이면 최고의 수요 시즌을 보낸다. 그러나 선박 우회 항해와 항만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작년 말부터 과도하게 선박량이 줄어들었다. 후티족의 공격이 강화되었고, 현물 컨테이너 가격은 올해 5월초 이후 두 배나 상승했다.
-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붐비는 싱가포르 항만의 선박 지연이 작년 5월과 비교해 44% 늘어났다.
- 현재 컨테이너들이 묶여있는 상황으로 인해 운항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반도체]

Bloomberg: US to Fight Labor Shortage With New Chips Act Worker Program

미국,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으로 노동력 부족 해결 시도

-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협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립 반도체 기술 센터(NSTC)를 위해 마련된 50억 달러의 연방 기금 중 일부를 사용하며,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의 예산으로 최대 10개의 인력 개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NSTC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 신청 절차를 시작하고, 모든 제안을 검토한 후 총 지출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금은 2022년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미국 내 칩 제조를 촉진하기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책정한 법안이다.
- 해당 법안은 반도체 연구 및 개발에 110억 달러를 배정했으며, 기업들은 이에 부응하여 10배 이상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이는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월요일에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법안의 첫 번째 인력 중심 자금 지원 기회로, 미국 컴퓨터 칩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

Bloomberg: US Auto Sales Set to Slow Amid Higher Rates, Dealer Cyberattack

미 자동차 판매 둔화 예상... 금리 인상과 사이버 공격 탓

- 지난달 미국 자동차 판매는 높은 물가와 가파른 대출 비용, 그리고 전국 딜러들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출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등세가 꺾였을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 기관 5곳의 컨센서스에 따르면 6월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의 1,610만 대에서 1,580만 대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높은 이자율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경제성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신차 대출의 연평균 이자율은 작년에 비해 1% 포인트 상승한 10%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구매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질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 Cox Automotive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Erin Keating은 전반적인 가격은 여전히 2020년 수준을 웃돌고 있어 추가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판매가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낮지만, 소비자들이 할인과 11월 대선이 금리에 미칠 영향을 기다리면서 판매가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 and U.S. Both Eye Breakthrough EV Technology

미국과 중국, 전기차 기술의 획기적 발전 노린다

- 중국은 전기차와 친환경 기술의 핵심인 배터리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소재 공급망도 장악하고 있다.
-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중국의 배터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 과학적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대체 옵션을 제공할 수는 있다. 대표적으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있지만, CATL과 BYD가 이미 그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2030년까지는 중국에서 대부분의 나트륨 배터리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 다른 대안은 흑연 음극을 실리콘으로 대체하여 배터리를 더 가볍게 만들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안이다. 이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서구 기업들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 이처럼 중국의 배터리 패권은 현재로서는 안전해 보이지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서구 기업에게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azon Delays Launch of Project Kuiper Broadband Satellites

아마존, 4분기에 인터넷용 우주 위성 발사 예정

- 아마존이 올해 4분기에 첫 번째 우주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다. 이는 이전에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연기된 것이다.
- 아마존은 2025년에 Project Kuiper network의 첫 고객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용 서비스는 아마존이 수백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후 제한적으로 시작되어 2025년 후반에 개시될 예정이다. 이전에는 내년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궁극적으로 아마존은 3천 개 이상의 위성으로 구성된 위성군에서 광대역 인터넷을 제공하여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경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CNBC: Inside Starbucks' plans to improve stores for customers and baristas

스타벅스, 음료 주문 방식 개선으로 대기 시간 줄인다

-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에서 음료 주문 방식을 개선하여 대기 시간을 줄이고 있다. 이는 모바일 앱 주문 폭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이렌 크래프트 시스템(Siren Craft System)'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도입해 바리스타의 업무를 쉽게 하고 고객 서비스 시간을 단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의 제조 순서 변경 등이 포함된다.
- 스타벅스는 이미 10% 이상의 매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7월 말까지 북미 전역에 적용할 예정이다.
- 이번 변화는 스타벅스가 2024년 전망을 하향 조정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4월에 스타벅스는 미국 동일 매장 매출이 3% 감소하고 트래픽이 7% 감소하는 등 실망스러운 2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American Express is taking control of restaurant reservations**아메리칸 익스프레스, Tock 인수로 레스토랑 예약 서비스 확대**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레스토랑, 바, 기타 장소 예약 앱인 Tock을 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 이미 경쟁사인 레스토랑 예약 앱 Resy를 소유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고객에게 특별한 테이블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와 델타 스카йма일스 리저브 고객은 예약하기 어려운 레스토랑을 독점 예약할 수 있고 취소가 발생하면 우선 예약권을 가진다.
- 미슐랭 스타를 획득한 인도 레스토랑의 오너인 Rajesh Bhardwaj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새로운 고객과 연결하고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와 큐레이션 메뉴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Tock 인수가 Resy에 이어 레스토랑 업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CNN Business 기사

트럼프 재선 가능성 상승에 美 국채 금리도 한달여만에 최고**월가, 트럼프 승리 시 채권시장 여파 분석 돌입**

오는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 국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월가 전략가들은 트럼프의 승리가 채권시장에 몰고 올 여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미국 채권시장에서 국채 금리는 몇 주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